

농산물·희토류...中, 美 겨냥 전방위 공세

美대표운송업체 페덱스 압박 “미국산 농산물 수입 70% 줄어”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미·중 양국이 지난 1일을 기해 보복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며 전면전에 돌입하자 중국이 미국을 정조준해 미국 대표 운송업체인 페덱스를 압박하고 희토류 카드마저 언급하며 전방위 파상공세에 나섰다. 중국은 또한, 미국을 대놓고 겨냥한 ‘블랙리스트 기업’ 제도까지 도입했으며, 무력시위 차원에서 보하이(渤海)만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하는 등 대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3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우정당국은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가 화웨이 화물의 목적지를 바꾸는 오류를 범하자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강한 불만을 표명하며 전

면 조사에 나섰다. 민간 운송업체의 배송 오류 사안에 대해 중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동원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보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많다.

페덱스는 화웨이가 지난달 19~20일 일본에서 중국 화웨이 사무실로 보낸 화물 2개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페덱스 본부로 잘못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정선 중국 우정국장은 지난 2일 페덱스 사건과 관련해 “어떤 택배 기업이든지 중국 법을 지켜야 하며 중국 기업과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도 페덱스 사건에 대해 중국 법을 어기면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외국 투자자들은 반드시 중국 법을 지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자국 기업의 권익을 침해한 외국기업

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공개했다. 즈류쑤 중국 상무부 안보 및 관계국장은 블랙리스트 지정 요건으로 중국 업체를 봉쇄하거나 부품 공급을 중단 또는 차별하는 외국 기업 및 조직, 개인을 지칭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중국 고위관리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이다. 왕서우원 상무부 부장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여부에 대해 “중국은 전 세계에서 희토류가 가장 풍부한 국가로, 희토류가 필요한 다른 나라의 수요를 만족시킬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제된 형태의 희토류는 비중이 더 높다. 미국은 첨단 전자제품과 군사 장비 등에 쓰이는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을 향한 무력시위도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 라오닝성 해사국은 보하이만 일대에 항행 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이후 라오닝, 산둥, 산시 등에서는 긴 꼬리를 가진 발광체가 공중을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많은 중국 누리꾼은 이 비행체가 중국군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SLBM ‘위랑(巨浪JL)-3’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위랑-3은 미국 본토와 유럽 전역까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1만3천km의 다단계 SLBM이다. 중국 해사국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남중국해 해상에서 군사 훈련이 있어 이들 해역을 통제한다고 밝히는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대미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84〉 이극용

이극용(李克用, 856~908)은 당말 돌궐족 사타부 출신이다. 황소의 난 진압에 공을 세워 유력자가 되었다. 주전충과 패권을 겨루었다. 그의 아들 이준욱이 후당을 세우자 태조로 추존되었다.

사타는 돌궐의 별부로 당 초기 천산 일대에 흩어져 살았다. 태종때 돌궐족이 무너지자 당나라의 부속국이 되었다. 사타부는 그 중 하나다. 원래의 성은 주사(朱邪)로, 부친 주사적은 의종때 일어난 방훈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국성인 이씨를 하사받아 이극장이 되었다. 이후 회흘을 견제하기 위해 진무절도사로 발탁되었다. 872년부터 아들 부자는 여러 번 소란을 일으켰다. 880년 조정은 이극용에게 참패했다. 다음해 조정은 그의 관작을 회복하고 중서령의 칭호를

계 되기 때문이다. 이극용이 군대를 동원해 장안으로 진격하자 전령자는 희종을 모시고 봉상으로 도망쳤다. 전령자가 실각하고 환관 양복공이 실력자로 부상했다. 주전충을 제거하는데 관심이 있던 이극용은 본거지로 돌아갔다. 우여곡절 끝에 888년 희종은 장안으로 돌아왔으나 병에 걸려 사망했다.

수왕 이걸이 소종으로 즉위했다. 소종은 890년 선무절도사 주전충, 분주방어사 혁련탁, 노룡절도사 이광범과 재상 장준, 공위의 견제에 따라 이극용 토벌 조서를 발표했다. 장준은 과거 이극용의 휘하에 있던 자인데 재상에 임명되자 이극용은 훗날 세상이 혼란해지면 장준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장준은 그를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압군은 이극용에게 참패했다. 다음해 조정은 그의 관작을 회복하고 중서령의 칭호를

돌궐족 출신, 당말 주전충과 패권 다툼

단으로 도망쳐 재기를 모색했다.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삭주를 공격해 세를 키우려 했다. 당 왕조는 장안을 점령한 황소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부득이 그의 죄를 용서했다. 그의 군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어 사람들은 ‘까마귀 군대’라고 불렀다. 그는 용모가 기이하고 한 눈이 작아 독안룡(獨眼龍)으로 불렸다. 날쌔고 용맹이(飛虎子)로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용맹하고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했다. 말을 탄 채 활을 쏘는 기병대를 앞세워 적진을 공격했다. 883년 초 황소군은 15만 대군을 양정파에 주둔시켰다. 그는 반군을 패배시키고 장안으로 진격했다. 2개월 후인 883년 4월 황소군은 장안에서 퇴각했다. 2년 후 황소는 태산 동남의 남호산에서 죽었다. 장안 회복의 공으로 주전충은 선무절도사, 이극용은 하룡절도사로 기용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28세였다.

둘은 양숙이었다. 주연 자리에서 술에 취해 주전충의 비위를 건드려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 급히 도망쳐 목숨은 건졌지만 주전충에 대한 원한이 깊어졌다. 하룡절도사 왕중영이 실제 환관 전령자와 사이가 틀어져 태영절도사로 옮겨지게 되었다. 왕중영은 이극용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중은 소금의 산지로 태영으로 이동할 경우 환관세력에게 중요한 경제자원을 넘겨주

내렸다. 봉상의 이무정이 장안을 공격하는 등 조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894년 이무정이 왕행유, 한건 등과 손잡고 장안에 쳐들어와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 896년에도 쳐들어와 소종은 2년간 장안에서 버텼다. 주전충이 본격적으로 장안에 뛰어들어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여러 번전을 진압해 하북의 여러 진이 그의 세력하에 들어왔다. 901년 이극용과 주전충이 진양에서 격돌했다. 수십일간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한 채 고군부투했다. 이 싸움을 계기로 이극용의 세력이 밀리기 시작했다. 주전충이 실세로 부상했다. 주전충과 재상 최윤은 힘을 합쳐 환관세력 제거에 나섰다. 결국 902년 환관 세력이 사실상 제거되었다. 904년 주전충은 자신의 야망에 장애물이 되는 최윤을 기습해 일당을 몰살했다. 이어서 소종을 죽이고 13세 이척을 새 황제로 옹립했다. 마지막 황제 예제다. 907년 주전충은 당을 멸망시키고 후당을 세웠다. 이극용은 태원에서 진왕으로 칭하고 있었지만 병사하고 장남 이준욱이 뒤를 이었다. 923년 후당을 멸하고 후당을 세웠다. 이준욱은 사타족의 기병을 조직화해 후량의 70여 주를 장악해 나가 후량은 불과 20여 주를 통치할 때를 이었다.

영국 국민방문 맞춰

런던 하늘에 ‘트럼프 베이비’ 반트럼프 시위 25만명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국민방문에 맞춰 지난 해 반(反)트럼프 시위대가 선보였던 ‘트럼프 베이비(Trump baby)’ 풍선이 다시 런던에 등장할 전망이다.

3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시위 주최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다우닝가에서 회담하는 4일의 회회 광장(Parliament Square)에서 20피트(약 6m) 크기의 트럼프 베이비 풍선을 2시간 동안 띄울 예정이다. 작년 7월 방문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난민·여성 및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 8만여 명이 런던에 모여 비슷한 크기(6m)의 트럼프 베이비 풍선을 띄웠다. 이번에 영국 각지에서 런던으로 모이는 반트럼프 시위대 규모는 25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예상했다.

100피트(약 30m) 상공까지 오를 수 있는 트럼프 베이비 풍선은 기저귀를 차고 휴대전화와 썬 모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하고 있다. 주최 측 대변인은 사디크 칸 런던시장에 이끄는 그레이터 런던 당국과 영국 민간항공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런던 경찰청의 최종 승인도 이날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영국 내 반트럼프 연대의 일원인 트럼프 베이비 풍선 준비팀은 3만 파운드(약 4500만원)가 모금돼야 풍선을 날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 모금 목표액은 2일자로 달성됐다. /연합뉴스



트럼프 유럽 순방길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낮가죽 두껍다” 北 비난에도 日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일본 정부가 자국의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 제안에 북한이 ‘낮가죽 두껍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북한이 일본 정부를 비판한 조선중앙통신 기사와 관련해 “북한 측의 발언에 하나하나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가 자신이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불신의 겹테기를 깨고 다음에는 스스로 김 위원장과 마주 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전제조건 없는 수뇌회담 개최”를 운운하는 아베 패당의 낮가죽이 두껍기가 곧 발바닥 같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날 초 김정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국가에 대해 전하의 못된 짓은 다하고 돌아가면서도 천연스럽게 ‘전제조건 없는 수뇌회담 개최’를 운운하는 아베 패당의 낮가죽이 두껍기가 곧 발바닥 같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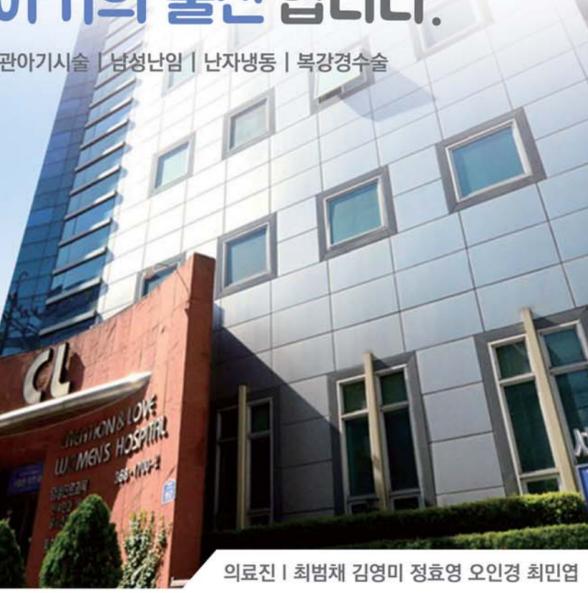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대한의사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시술 | 냉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의료진 | 최범재 김명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